

美 ‘클래리티법’ 입법 임박?… 가상자산 가격 연일 상승세

(가상자산 중복규제 가능성 해소 법안)

비트코인 3일째 장중 8만달러 넘겨
한 달 간 가격 상승폭 24.5% 달해
이더리움 32%, 바이낸스 30% 상승
‘클래리티법’ 15일 미 상원서 표결
불발해도 ‘대체법안’ 시행 가능성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연일 상승세다. 미국 ‘클래리티법’의 입법이 임박했다는 관측으로 정책적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다. 가상자산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의 투자심리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 BTC·ETH 등 가상자산 급등

7일 가상자산 시황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지난 6일 정오께 1BTC당 7만 9916.96달러에 거래됐다. 24시간 전과 비교해 0.41% 상승한 수준으로, 지난 4일 이후 3일 연속으로 장중 8만달러를 넘겼다. 지난 한 달 간의 가격 상승폭은 24.50%에 육박했다.

주요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의 가격 상승세도 거세다. 가상자산 시총 2위 이더리움(ETH)은 지난 1개월 동안 32.08%의 가격 상승률을 기록했고, 3



비트코인 가격이 1억1000만원선을 회복한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빙셀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다. /뉴시스

위 바이낸스(BNB)는 29.89% 올랐다. 4위 리플(XRP)은 39.25%, 5위 솔라나(SOL)는 46.15%의 가파른 상승을 기록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투심도 뜨겁다. 지난 6일 가상자산 시장의 투심을 나타내는 지표인 탐욕·공포 지수(0~100을 기준으로 높을수록 투심 과열)는 75를 기록해 탐욕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가상자산 가격 상승이 한창이었던 작년 5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지난달 말에는 공포·탐욕지수가 82까지 상승해 ‘극단적 탐욕’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

한 지난 2024년 11월 이후 최하다.

◆ ‘클래리티법’ 임박… 정책적 기대감 ↑
최근 가상자산 가격의 상승을 이끄는 것은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입법 기대감이다.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을 ‘상품성 가상자산’과 ‘증권성 가상자산’으로 분류해 중복 규제 가능성을 해소하는 법안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증권성 가상자산은 미 증권위원회(SEC)가, 상품성 가상자산은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관할하게 된다. 파생상품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기업

투자자의 자금 투자를 촉진하는 만큼, 친(親) 가상자산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클래리티법은 오는 15일(현지시간) 미 상원 표결을 앞뒀다. 클래리티법은 작년 7월 미 하원 통과 이후 1년 넘게 미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최근 법안 초안 작성을 주도했던 프렌치 힐 미 공화당 의원이 “초당적 논의가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언급하면서 입법 기대감이 커졌다. 클래리티법이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최소 7명의 미 민주당·무소속 상원의원의 지지가 필요하다.

클래리티법이 불발되더라도 ‘대체법안’이 시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달 18일(현지시간) 가상자산 투자 체계를 규율하는 ‘레귤레이션 크립토(Regulation Crypto)’ 규정을 제정했다. 해당 규정은 클래리티법과 유사하게 가상자산의 성격에 따라 규제기관별 규제범위를 분리하는 만큼, 클래리티법의 지연을 우회하는 ‘대체법안’으로 평가받는다.

폴 S. 앳킨스 미 증권거래위원회 의장은 당시 “해당 규정은 가상자산 사업자 및 투자자들이 연방 증권법에 따라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명확한 경로를 제공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의회가 지속가능한 규제 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시장에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제안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 강세 요인 여전… ‘추가 강세’ 가능성
전문가들은 주요 가상자산의 가격이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평가한다. 달러 약세를 비롯한 가상자산의 가격 상승 요소가 여전해서다.

가상자산 전문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Bitwise)의 안드레 드라고시 유럽 리서치 책임자는 최근 보고서에서 “비트코인 가격과 달러지수(DXY) 간의 상관관계는 음수로, 달러 약세는 비트코인에 유리한 흐름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달러의 평가절하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일종의 증폭된 금(Gold) 처럼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과 주식의 상관관계는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고, 금과의 상관관계는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면서 “비트코인이 헤지(위험 회피) 수단으로 여겨지는 현 추이가 이어진다면, 향후 가격 앙상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2분기 산업대출 잔액 2065조, 30조 증가

한은, 제조업 대출 전분기비 8.4조 ↑
부동산 PF에 서비스업 대출폭 키워

올해 2분기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대출이 30조원 넘게 늘면서 잔액이 2065조원을 넘어섰다. 반기 말 재무비율 관리로 제조업 대출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과 증권사의 증거금 수요가 늘면서 서비스업 대출은 증가폭을 키웠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2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에 따르면 2분기 말 산업별대출금 잔액은 2065조3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30조6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액은 1분기 30조8000억원보다 2000억원 줄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92조3000억원(4.7%) 늘었다.

제조업 대출은 8조4000억원 증가해 1분

기 11조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기업들이 반기 말 재무비율 관리에 나서고 일부 대출을 조기 상환하면서 시설자금 증가액이 4조4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줄어든 영향이다.

업종별로 화학·의약품제품 대출 증가액이 2조4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줄었고 제1차금속도 2조1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전자·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는 1조원 늘어 전분기 증가액 1조8000억원을 밑돌았다.

반면 서비스업 대출은 19조9000억원 늘어 전분기 19조1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부동산업 대출 증가액은 PF 대출 보증 확대 등의 영향으로 2조5000억원에서 6조2000억원으로 커졌다.

금융·보험업도 4조8000억원에서 6조2000억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파생상

품시장의 증거금률 인상으로 증권사를 중심으로 자금 수요가 늘어난 결과다. 도소매업 대출 증가액은 5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자금 용도별로는 운전자금이 23조8000억원 늘어 전분기 21조4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회사채 상환을 위한 자금 수요 등이 영향을 미쳤다. 시설자금 증가액은 9조4000억원에서 6조9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업권별로 예금은행 대출은 29조3000억원 늘어 증가폭이 확대됐지만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1조3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예금은행 대출 가운데 대기업 증가액은 12조7000억원에서 16조5000억원으로 커졌고, 개인사업자는 1조5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줄었다.

/김주형 기자 gh471@



서울 양천구 목동에 들어서는 ‘목동윤슬자이’의 견본주택에 마련된 내부 모형도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다. /더피알

‘100% 추첨제’ 목동윤슬자이 오늘 청약

20년만의 목동 신축, 70% 대출
평당 1억 안팎 높은 분양가 부담

서울 양천구 목동에 들어서는 오피스텔 ‘목동윤슬자이’가 청약에 흥행할 지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목동에서는 20년 만에 들어서는 신축인 데다 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하이엔드라고 해도 3.3㎡(평)당 1억원 안팎의 분양가는 부담이다.

7일 청약홈에 따르면 목동윤슬자이는 오는 8일 청약을 진행한다. 청약통장이나 주택 소유, 거주지역 등에 제한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이 가능하며, 당첨자는 100% 추첨제로 선정한다. 입주 예정일은 오는 2030년 12월로 공고됐다.

목동윤슬자이는 옛 KT 목동부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48층, 3개 동, 전용면적 114~203㎡ 총 651실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 공급 물량은 ▲115㎡A 118실 ▲114㎡B 208실 ▲114㎡C 118실 ▲119㎡A T 1 45실 ▲120㎡A T 2 30실 ▲120㎡A T 3 15실 ▲117㎡C T 1 45실 ▲118㎡C T 2 45실 ▲203㎡AD 10실 ▲202㎡BD 9실 ▲198㎡CD 8실 등이다. 전 호실에 오픈형 발코니를 적용하고, 중대형 평형으로만 구성해 가족 단위 실거주 수요를 겨냥했다.

장단점은 명확하다.

먼저 장점은 좋은 입지와 고급화된 상품이다. 목동 생활권의 중심인 5호선 오목교역이 도보거리며, 교육을 비롯해 대부분의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상태다. 세대 내부는 발코니 등을 활용한 특화설계와 함께 수입 주방가구와 수입산 마감재가 기본 사양이며, 시스템에어컨과 세탁건조기 등 주요 가전도 모두 제공한다. 47층스카이커뮤니티와 함께 지하에는 조선포털 엔리조트가 위탁 운영하는 ‘몽코드 클럽 바이 조션’이 들어선다.

자금 부담도 덜하다. 서울에 적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대출 규제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본인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만 가능하다면 분양가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별도로 중도금 이자후불제가 적용되며, 대출금리는 연 2.5%로 제시했다.

단점은 먼저 높은 분양가다. 타입별로는 115㎡A가 33억4400만원이며, 복층형인 202㎡BD는 63억4000만원에 달한다. 인근 주상복합 단지인 ‘현대하이퍼리온 II’ 전용 119㎡는 지난 5월 31억원에 실거래를 신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안상미 기자 smahn1@

카카오뱅크, 고객 자산현황 ‘한눈에’

모바일 앱 화면 개편

카카오뱅크가 고객의 자산현황을 한눈에 확인하고 이용 특성에 맞춰 화면을 구성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홈 화면을 개편했다.

카카오뱅크는 보유 계좌를 유형별로 묶어 보여주고 카드·신용정보·투자 등 주요 금융정보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앱 홈 화면을 새롭게 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

개편된 홈 화면에서는 고객이 보유한 계좌를 유형별로 묶어 확인할 수 있다. 여러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비슷한 유형의 계좌가 함께 표시된 화면을 스크롤하지 않고도 자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별도 탭에서 확인해야 했던 카드와 신용정보, 투자 관련 항목도 홈 화면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고객은 앱을 실행한 직후 카드 이용금액과 신용점수 변동, 투자 수익률 등 주요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고객이 원하는 계좌와 서비스만 선택해 홈 화면을 구성할 수 있는 맞춤형 편집 기능도 도입했다. 화면 하단의 ‘화면 편집’ 메뉴를 통해 노출할 계좌와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고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계좌별 잔액을 숨기는 것도 가능하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개편을 통해 고객별 금융 이용 방식과 생활 패턴에 맞춘 개인화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하나금융 비즈니스대상서 ‘금상’

하나금융그룹은 ‘2026 국제비즈니스대상(International Business Awards·IBA)’에서 출판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수상작인 ‘하나금융그룹 20년사’는 그룹 출범 2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하나금융 최초의 통합 역사서다. 자주·자율·진취의 창업정신을 비롯해 손님과 사회를 향한 그룹의 가치와 성장 과정을 담았다.

특히 1971년 그룹의 모태인 한국투자금융 설립부터 하나은행 전환, 하나금융그룹 출범에 이르기까지 55년에 걸친 도전과 성장의 역사를 집대성했다. 사사 편찬 전문기업 다니기획과 협력해 역사적 기록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했다.

/나유리 기자